

2008 제주 문예연감

문예

2007년 제주의 시, 시조

이 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관련기사와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07년 한 해 제주시단을 간략히 조명하였기 때문에 분석보다는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쳤으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1. 시집·시조집 출간

2007년 한 해 동안 제주의 독자들에게 새로 선보인 시집에는 개인시집 16권, 기간문학단체 및 동인이 발간한 시집 6권 등 모두 20여 권에 이른다.

민들레 홀씨 날려 넉넉해진 섬이 있다. 시인묵객이 다 우러내 비밀한 점 없지만 한여름 별빛을 품어 말갭게 깨어 있다

누가 마라도에서 키를 재려는가 잔디는 땅을 기어 머리 들지 않으며
절레는 습성대로 낮게낮게 발을 딛네 늙은 해녀들이 처녀당에 불을 켜
듯 질긴 목숨 순비기가 바람꽃을 토해낸다

역새는 고집스레 묵은 꽃대 세우고 해풍에 마음 푸는 얼굴 환한 소
나무 고개를 들 때마다 삭정이가 부러진다 그래도 누군가 욕심을 부리
나 보다 주뻗주뻗 빗돌들이 바람을 거스르네

등대여, 그대 밤불을 놓아 저녁 바다 후끈한가

이제 내방객은 가만히 고수가 되라 둥그런 수평선의 큰 북 같은 노
을 앞에, 무시로 섬을 때려라
아, 마라도 쇠북소리

- 홍성운 「마라도 쇠북소리」 전문

연초부터 이어진 신작 시집에 관한 뉴스 중 눈길을 끈 것은 홍성운의 시조시화집 『마라도 쇠북소리』이다.

「마라도 쇠북소리」, 「바람까마귀」, 「멀구슬나무」, 「섬역새 겨울나기」 등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집에는 제주적인 소재에 천착하면서도 현실적 삶의 방식들이 보여주는 이중적 태도와 모순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편들이 담겨 있다. 제주오름을 또 다른 기법으로 강렬하게 그려내는 화가 백광익의 그림들과 만난 이 시화집 속의 작품들은 서울 인사동의 갤러리와 제주문예회관에서 전시되어 시와 그림이 아우르며 빚어내는 또 다른 감동을 독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사라오름 [紗羅峰] 비껴 바다로 떨어지는 해나 보여주십시오
그 아래

하찮은 풀꽃 같은 내 삶 하찮은 물결 소리 하나로 스러지게 하십시오
그 위에

꽃피는 구름 한 점 걸어 놓고 흘러가야 될 정처를 묻지 마십시오
새들도 모두 바람 불어가듯 알지 못할 곳으로 날아가게 하십시오

아니
이 세상
모든 것들
가고
오지 않게
하십시오 마침내

나 하얗게
비어
어둑어둑
눈감게 하십시오

- 문충성 「저녁의 노래」 전문

위 작품은 '죽음'에 대한 집요한 탐구, 현실과 공모하거나 그것에 섞여들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자의 안타까운 노래이다. 첫 시집 『濟州바다』 이후 아홉 번째로 펴낸 시집 『백년 동안 내리는 눈』에 이르기까지 문충성은 시종일관 죽음에 대해 말하며,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전히 이 섬을 벗어나지 못한 듯 보이는 시의 공간적 요소에 대한 세간의 평에도 별달리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시인은 '씩어있고 욕심 많고 무반성적인' 현실에 대해 늘 비판하고 때론 온 몸으로 충돌하는 정신세계를 보여줄 뿐이다. 시인은 이순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부정한 것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신랄히 풍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일관성이 "그의 의지와 삶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진정성'에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어내기도 하며 제주문단의 한 위치에 우뚝 서 있다. '이제는 그만 쓸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시인의 다소 감상적인 독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적 여정은 계속될 듯 보인다. 아마 그가 집요하게 천착하는 죽음이 마침내 그와 벗하기 전까진 말이다.

2007년은 시인들의 첫 시집이 눈에 띄는 한 해이기도 했다. 수필가이면서 두 해 전에 시인으로 다시 등단한 김길웅이 『여백』을, 2004년에 『리토피아』로 데뷔한 김효선은 『서른다섯 개의 뼈격거림』을 펴냈으며, 송 상은 『에벌레 날마다 탈출을 꿈꾼다』를 통해 오랫동안 가다듬었던 그만의 독창적 시세계를 드러냈다.

1밀리의 눈금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로 재는 경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무한의 공간에 내가 쌓으려는

경계는 어디인가

- 신용균 『자로 재는 세상』 부분

모슬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신용균은 『자로 재는 세상』을 통해 농부로서 부딪히는 고단한 현실과 아픈 역사의 땅인 모슬포를 노래하고 있다. 3부로 나눠 담은 50여 편의 작품에서 시인은 선(線)의 이미지를 견지하며 현실적 삶의 모습과 그것을 초월하려는 내면적 갈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이외에도 성산포가 고향인 이승익은 우도와 성산포 사이 바다를 우성장이라 이름 붙인 『우성장 연가』를, 양인택은 『과수원 가는 길』을 각각 첫 시집으로 상재했다.

현대시조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 2007년은 어느 때보다 시조시집 출간이 두드러졌다. 이 시집들은 때론 음보와 율격에 맞는 정형의 모습으로, 때론 자유롭게 풀어헤치되 우리말의 맛깔스러움과 시조 고유의 격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2000년에 『열린시조』로 데뷔한 김윤숙의 『가시낭꽃 바다』, 1999년 농민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문순자의 『파랑주의보』 등은 각각 시인들의 첫 시집이다. 제주 고유의 서정적 풍경과 향토적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이 섬에서 펼쳐지는 삶과 역사에 대한 작가적 인식과 성찰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씻어도
 씻어봐도
 4·3은 4·3인 걸
 시름도
 숨비질에
 세월이사 흘러놓고
 청상(靑孀)은
 흐르지 못하는
 통앳 물로 남는다

- 강문신 「소남머리」 전문

강문신은 1990년 서울신문, 19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18년 만에 펴낸 첫 시집 『당신은 “서귀포…”라고 부르십시오』를 통해 서귀포를 배경으로 그의 체험이 육화되어 녹아든 작품들을 선보였다.

한편,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출간도 이어졌는데 양전형은 여섯 번째 시집 『도두봉 달꽃』을, 김경훈과 김순남은 각각 네 번째 시집 『삼돌이네 집』과 『누가 저 시리게 푸른 바다를 깨뜨릴까』를 펴냈다. 김승범의 『넌 타잔 난 죄인』, 문정희의 『우린 마주보며 웃었다』, 양인택의 『과수원 가는 길』 등도 2007년에 독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였다.

각종 문예지와 동인지 발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이하 제주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제주지회(이하 제주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이하 서귀포문인협회)〉, 〈제주시조문학회〉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기관지를 펴냈다. 이외에도 문학동인 〈깨어있음의 시〉가 『섬다워진다는 것』을, 〈한수풀문학동인〉들이 시선집 『필름 속에 갇히다』와 『시인과 귀뚜라미』를 상·하반기에 각각 펴냈으며, 〈한라산 문학동인〉은 창립20주년을 기념하여 동인 시집을, 제주·충북작가회의는 공동시집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를 펴냈고, 〈구좌문학회〉에서도 『동녘에 이는 바람』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였다.

2. 등단, 새 얼굴들

약 20여 명의 새 얼굴이 신문지상을 통해 등단 소식을 알렸다.

제주문단 전체를 놓고 볼 때 시 장르 한 분야에서만 이 정도의 신인이 배출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글쓰기라는 행위가 어느 한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라도 쓰고 읽으며 공유할 수 있게 된 인터넷시대의 특성상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 때 독자층으로 머물렀던 부류가 나도 한 번 써 보고 싶다는 창작 욕구층으로 전이 되어, 각종 문학단체나 대학, 지역 도서관, 그리고 크고 작은 모임들이 주최하는 창작교실 등을 통하여 습작의 단계를 거친 후 시인으로 데뷔하고 있는 듯하다.

아쉬움이 있다면 신인들의 연령 문제다.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의 등단이 최근 몇 년간 제주문단에서는 이미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만큼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문학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인 수작이나 역작을 많이 빚어낼 수만 있다면 이들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들의 등단은 주로 문예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문예지나 연 1회의 신인상 공모 절차를 통한 등단을 제외하고는 격월간 『시와 창작』 2명, 월간 『한울문학』 2명, 월간 『문예사조』 4명, 격월간 『현대문예』 2명, 월간 『순수문학』 2명 등 최근 몇 년간 제주문인들의 주요 등단 경로가 몇몇의 한정된 잡지 지면에만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 등단한 신인들의 작품과 등단지는 다음과 같다.

- 강문봉, 「사랑의 봄 향기」 외 4편, 월간 『한울문학』, 신인문학상.
 강연익, 「태풍의 중심에서」 외 2편, 월간 『시사문단』, 신인문학상.
 고춘옥, 「한국여자」 외 4편, 계간 『리토피아』, 신인상.
 김건우, 「황사」 외 2편, 월간 『스토리문학』, 신인문학상.
 김도명, 「적조」 외 2편, 월간 『문예사조』, 신인문학상.
 김은숙, 「세월」 외 2편, 월간 『문예사조』, 신인문학상.
 김창화, 「불배」 외 2편, 격월간 『시와 창작』, 신인문학상.
 김향진, 「홍매」 외 5편, 계간 『시조시학』, 신인작품상.
 김향희, 「인연」 외 2편, 월간 『문예사조』, 신인문학상.
 박근영, 「그리움을 위한 변주곡」 외 4편, 격월간 『좋은 文學』, 신인문학상.
 박동일, 「길 없는 길」 외 2편, 월간 『시사문단』, 신인문학상.
 백원용, 「수마석」 외 3편, 계간 『서울문학』, 신인문학상.
 변재천, 「고향바다 앞에서」 외 4편, 월간 『순수문학』, 신인문학상.
 서순영, 「양배추 응결을 풀다」 외 1편, 『제주작가신인상』 당선.
 양태영, 「월출」 외 4편, 월간 『한울문학』, 신인문학상.
 오대익, 「첫눈 내리던 날」 외 2편, 격월간 『현대문예』, 신인문학상.
 이민화, 「푸른 상처」 외 1편, 『제주신인문학상』 당선.
 이이현, 「달이 없어져 버린 날」 외 2편, 격월간 『시와 창작』, 신인문학상.
 이중옥,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외 4편, 월간 『순수문학』, 신인문학상.
 정희원, 「산행」 외 2편, 격월간 『한국문인』, 신인문학상.
 최길복, 「그리움」 외 2편, 격월간 『현대문예』, 신인문학상.

3. 시가 있는 행사들

시를 주제로 해서 도민들과 시인들이 함께 자리하는 행사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다. 그 흐름을 이끄는 수레 역할을 하는 단체로 역시 <제주시사랑회>를 빼놓을 수 없다. 2000년 6월에 창립된 이래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산지천 해상호에서 열리는 정기 시낭송회는 이미 제주지역에선 널리 알려진 행사로 자리 잡았다.

계절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거나 제주고유의 전통, 제주4·3사건 같은 역사를 주제로 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에는 제주의 시인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시인들도 초대되어 시낭송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채롭게 진행되는 등 시가 어렵지 않게 대중적 영역 확장에 일조하고 있다.

다만, 낭송하기에 적합한 시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 시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하고 자칫 감성적인 시들만 소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귀포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詩로 봄을 여는 서귀포」도 주목할 만한 행사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 날 행사는 세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마당 「봄을 여는 행사」에선 윤봉택 시인의 ‘영춘시’를 제주시사랑회 김정희 회장이 낭송하고, 이승은 시인이 축시 ‘봄, 서귀포’를 들려주었으며, 둘째 마당은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선상봄맞이 행사, 노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최남단 서귀포에서 새로운 생명의 태동을 알리고 제주가 ‘평화의 섬’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새봄과 시가 만나 어우러지는 문학프로그램으로 행사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나누어주는 수선화 향기처럼 봄의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학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귀포전국문학인대회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성산포에서 열렸다. 제주문인협회와 서귀포문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24일 오후 3시 시화전 개막과 제주민요 공연으로 문을 연 전야제에서는 정일근 시인의 문학강연, 문학작품 낭송회, 가수 양정원 공연, 도민과 작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5일에는 본행사로 전국문인한마당이 열려 박동규 교수, 정완영 시인, 김순이 시인의 초청강연과 제주관련 명시 낭송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한편, 서귀포문인협회는 서귀포시를 소재로 한 시와 산문, 강연내용을 모아 문학인대회 기념 작품집 『도채비꽃 파랗게 질리다』를 펴냈다.

송수권 시인이 교장으로 있는 <섬사랑시인학교>가 8월에 우도에서 여름캠프를 열었다. 사단법인 섬문화연구소(소장 박상진)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 캠프에는 제주와 서울 지역의 시인들, 우도의 해녀, 주민들이 참석하여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마다 전국의 섬과 등대를 찾아 캠프를 열고 있는 섬사랑시인학교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백년 전통의 우도등대를 찾은 것인데, 민요패 <소리왓>의 공연과 하모니카, 통기타 등의 음악공연이 첫날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이성부 시인의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라는 주제의 문학 강연과 해변 백일장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한라산문학동인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탐동광장에서 여름시화전을 개최했다. 동인지 발간 이외에도 매월 작품 합평회를 갖는 등 문학에 대한 열정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동인들과 초대시인들의 작품이 전시된 현장에는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성황을 이루어 여름밤의 정취와 시향이 어울리는 한마당을 빚어냈다.

<제주작가회의>가 주최하는 제2회 「詩가 있는 가을로의 초대」가 9월 29일 한라수목원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태풍 ‘나리’가 온 섬을 강타하여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자연재해의 상처를 매만지며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이 행사는 우수문학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후원했다. 문학 향수층의 저변확대와 작가와 독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민 독자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초·중·고 대학생층이 고루 참여하는 시낭송을 비롯하여 초대시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육성 시낭송과 노래공연 등이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다. 도종환, 정윤천, 이대흠 등 외부 초청시인들과 문무병, 양전형, 김광렬, 정군철, 김수열 등 제주의 시인들이 가을밤을 수놓은 시의 선율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었다. 또한 이 행사에는 제주야생화를 소재로 한 시화전이 함께 개최되었는데, 도민뿐만 아니라 한라수목원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시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10월에는 베트남의 시인 찜짱이 소설가 응웬 옥 트 등 베트남 작가들과 함께 제주를 찾았다. 서울에서 열린 문학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이들은 제주작가회의의 초청으로 제주를 찾아 북촌리 애기무덤 등 4·3사건 유적지를 둘러보고 제주작가회의 소속 문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찜짱 시인은 베트남에선 국민시인으로 존경을 받을 만큼 왕성한 문학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흔을 건너는 평화의 다리’라는 주제를 내건 이날 만남에서 전쟁과 이념의 대립으로 상처를 입은 양 지역의 역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평화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문학적 소통과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같이 노

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4. 맺는 글

시를 쓰는 일은 과연 생산적 작업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생산된 결과물들은 신선도를 유지한 채 잘 유통되고 있는 것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한 우리는 제주문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느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얼굴들이 등용의 관문을 거쳐 제주문단의 새 가족이 되었으며, 적지 않은 수의 시집들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한 해 동안 제주시단의 흐름을 딱히 이렇다라고 명징하게 규정짓지 못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이 질문들은 곧 우리 모두에게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분발을 촉구한다.

문단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이를 애써 부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명제는 내가 사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때 비로소 유효하다.

지역은 그곳만의 독자성과 특수한 정체성을 가진다. 문학도 예외는 아니다. 자기 고장의 문화유산과 풍습, 풍속 등이 담겨있는 작품들은 물론, 훼손되어가는 것들, 오염되어가는 것들, 점점 사라져가는 삶의 모습이나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세계의 명(明)과 암(暗)을 찬찬히 담아내는 것도 시인들의 몫이다.

- 글 / 이 종 형(시인)

2007 제주 수필문학의 동향

1. 머리말

흔히 수필을 일컬어 체험의 문학이라고 한다. 작가 자신이 겪었던 일상의 일, 사건, 생각, 느낌 등을 소재로 하는 장르라는 뜻이다. 하지만 담론을 일삼듯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수필을 쓰기 위해 사랑하고 미워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하고 상상하며 날아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냥 그대로 송두리째 수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수필의 소재가 되려면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을 취사선택해서 선별적으로 가공한 후 거기에 문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미적 단계로 나아가 작품화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담론은 그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수필가의 문학적 재능-작가적 안목과 감수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것을 감식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환기할 것이 하나 있다.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근엄하며 더 중요한 무엇이다.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독특한 것들이지만, 시가 말해주는 것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시학』에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수필에서 체험은 보편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단지 평범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얻어 낼 수 있는 작가적 감식안을 지녀야 한다. 감나무 밑이라고 입만 짝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학습으로 혹은 치열한 탐구로 뮤즈가 찾아들도록 길트기를 해야 한다는 적극성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2. 제주수필의 동정

1990년대 이후 제주수필문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왔다. 이는 수필가의 수적 팽창과 더불어 수필의 문학적 성숙을 아우르는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상반기에 발행된 제주문인협회 기관지 『濟州文學』 회원 주소록에는 수필 장르 소속 회원이 무려 80명이나 된다. 이는 다른 장르를 압도하는 엄청난 수효가 아닐 수 없다.

1990년대 초 7, 8명이 고작이던 수필가가 2004년에는 60명을 넘어서더니 급기야 8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주문인협회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회원에 한한 것으로 수필로 등단하고도 문인단체에 입회하지 않은 잠재적 수필가를 포함시킬 때, 문학장르 중 가장 많은 작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일단 수필문학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성장은 가히 급진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이 작품의 질적 나아짐을 의미하느냐 하는 데는 반드시 긍정적 입장만 있는 게 아니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다. 이는 수필문학이 직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수필 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와, 작가층의 무분별한 확대 생산으로 수필가의 자질과 작품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 수필문학 내부의 뼈아픈 자생노력과 함께 진지한 자기성찰이 따라야 할 대목이다.

이 시점에서 제주수필문학은 무엇보다도 고유한 문학장르로 수필을 포함한 다양한 산문적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필 비평적 담론의 활성화가 대두돼야 하리라 본다. 등단했으니 기성 수필가요, 써서 내놓으면 수필이라는 현실 안주의 안이한 자세야말로 수필문학에 도사리고 있는 내부의 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차체에 평론 활동을 통해 분화와 심화를 거듭하고 있는 수필문학의 장르적, 형식적, 기법적, 내용적인 기본 범주 설정과 하위 범주의 유형화가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개별 작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비평 작업이 전개돼야 함을 상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3. 제주수필의 현주소

최근 들어 제주수필은 다른 어느 장르보다 많은 변화를 추구하는 수용적이고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수필은 금세기가 요구하는 장르로써 이 시대의 총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만큼 독자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문학장르로 위상을 높여야 하리라고 믿는다. 이 말은 기존의 수필문학단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일층 수필문학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는 데서 탄력을 받게 된다.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여류수필문학회, 녹담수필, 백록수필, 동인 脈, 『수필과 비평』 출신작가회, 『대한문학』 출신작가회, 『현대문예』 출신작가회 등 수필 동아리 성격의 문학단체들이 속속 발족하면서 지역 수필문단의 중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격월간 수필전문지 『수필과 비평』과 계간종합문예지 『대한문학』 출신작가회는 등단 모지(母誌)를 중심으로 최근 발족한 수필문학단체로서 같은 경로를 거쳐 문단에 나왔다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수필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음에 비춰 머지않아 제주 수필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것이다.

동인 脈은 2007년 3월에 창립한 「9인 수필동인」으로 ‘삶의 진실을 치열하게 탐구한다.’는 표방 아래 본격수필을 지향하면서 등장한 수필동인이다. 수필의 새 패러다임 창출을 화두로 기존 수필에 대한 해체와 일탈을 내걸고 창립 원년에 동인지 『脈』을 발행하는 등 의욕이 충만한 만큼 지역문단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 많은 신인들이 배출된 것에도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시사문단』, 『에세이스트』, 『수필과 비평』, 『대한문학』, 『한국문인』 등 수필 전문지 또는 종합문예지에서 신인상을 받고 등단함으로써 제주수필문단이 수필가로 충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문제는 이들 신예수필가들이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등단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는 데 그칠 것이냐, 아니면 문제의식을 갖고 수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순전히 작가 자신의 작가적 의지와 책무에 달렸다고 본다.

4. 제주수필의 새로운 활로 모색 방향

비단 제주수필에 국한할 것은 아니지만 수필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이를 경계해야 한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다, 신변잡사 무엇이든 그 소재가 된다, 무기교의 문학이다,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수필의 태생적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수필이라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문학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 않은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필은 문학이 아닌, 잡문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관념화돼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 수필은 고독에 에워싸여 있는 문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의붓자식 취급하는 문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수필이 진정 자타가 공인하는 문학의 확고한 위상을 다지려면 작품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수필가 스스로 더욱더 문학적인 수필 창작을 통해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수필의 자구적 노력이면서 장차 수필의 존폐와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위 신변잡기를 벗어나지 못한 수필은 독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마땅하다. 이제 그런 안이한, 학생들의 작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필을 등단 작가의 작품으로 내놓는 어설픈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야말로 자업자득일 뿐이다.

서사적인 문체의 힘에 의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서정성을 통한 감성적 접근도 수필적인 작품의 수준을 한 켠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필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독자에게 울림을 주는 문학이 돼야 하리라는 얘기다. 이를 일러 문학적 수필이라는 표현이 가당할는지 모르겠다. 문체의 문체가 대두될 것이고 무엇을 소재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담론이 수필에만 한정될 그런 성질의 것은 또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시나 소설 같은 다른 장르의 경우에도 적지 않게 보아 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정말 저것을 시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을 품게 하는 작품들을 수없이 접해 왔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중할 일이다. 다른 장르를 말하기에 앞서 수필 자체에 대한 혹독한 반성이 선행돼야만 한다. 같은 수필가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거북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제주수필이 한 차원 높은 문학적 위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필가들이 수필다운 수필을 써야 하겠다는 것이다. 글답지도 않은 것을 수필이라고 버젓이 내놓는다면 이는 독자를 모독하는 처사와 다름 없다.

앞으로 제주수필은 수필을 쓰는 데 일가를 이룬 사람에게 붙여진 수필가라는 이름에

걸맞은 질 높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적 역량을 재충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가는 활자로, 작품으로 승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제주수필문단의 새로운 움직임

가. 등단한 새 얼굴, 뚜렷한 자취들

2007년에 수필전문지나 종합문예지를 통해 많은 신인작가들이 속속 등단했다. 이들은 모두 수필에 대한 열망에서 수필 창작의 의욕으로 넘치는 작가군(群)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제주수필은 타 시도에 비해 풍성하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신인 수필가들이 종사하는 분야가 각기 다르듯 그 등단 경로도 다양할 뿐 아니라 등단작품이나 작품 기법 또한 모두 개성적이어서 앞으로 제주수필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하고 있다.

- ▶ 오승휴 : 격월간 수필 전문지 『수필과 비평』 2007년 1·2월호에 「어머니의 자리」로 신인상 수상. 평생 자신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담아냄.
- ▶ 부정숙 : 계간 종합문예지 『대한문학』 2007 봄호에 「고금선의 딸 고정아를 보면서」로 신인상 수상. 장애인들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이타행을 행하는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그려냄.
- ▶ 현명자 : 격월간 수필 전문지 『에세이스트』 2007년 2·3월호에 「순비기꽃이 필 때면」으로 신인상 수상. 오래 전 파도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언니와 ‘바닷속 깊이 자맥질했다가 솟구치며 올라와 내뿜는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꽃을 피운다.’는 속설의 숨비꽃을 빗대 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담아냄.
- ▶ 좌여순 : 월간 문예지 『시사문단』 2007년 3월호에 「가을 산책」으로 신인상 수상. 학창 시절 문예반에서 문학과 끈끈한 인연을 맺은 작가가 이 글을 통해 깊어진 가을처럼 융성한 계절의 향기와 침묵의 교훈을 아름다운 언어로 보듬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 ▶ 박영찬 : 계간 종합문예지 『대한문학』 2007년 여름호에 「성님, 이거 하나 갖다 먹어봅써」로 신인상 수상. 자기 집 텃밭에서 가꾼 무를 이웃에게 건네는 제주 인심의 원형, 가난하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던 고향에 대한 회상, 삭막해가는 시골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그려냄.
- ▶ 정순덕 : 격월간 수필전문지 『에세이스트』 2007년 6·7월호에 「어머니의 숨비소리」로 신인상 수상. 매 순간 죽음을 등에 업고 심해로 자맥질하는 어머니를 소재로, 물질이란 ‘도 닭음’이라고 일러준 어머니에 대한 회고를 되새김.
- ▶ 현태용 : 격월간지 『수필시대』 2007년 7·8월호에 「작은 항아리의 비밀」로 신인상 수상. 타계한 부친 생존 시 제주4·3 체험을 다룸. 제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데올로기라는 거대 담론 아래 참혹한 비운의 역사로 점철됨을 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조화롭게 버무림.
- ▶ 안정혜 : 격월 수필 전문지 『에세이스트』 2007년 8·9월호에 「어머니의 시계」로 신인상 수상. 늙으신 어머니의 일상과 자신의 대비를 통한 존재에 대해 성찰과 인간의 보편적 인식 범위 내에서의 시간 개념과 그 인식을 날카롭게 분석함.
- ▶ 김상우 : 월간 문예지 『모던포엠』 2007년 8월호에 「장마」로 신인상 수상. 소재와 주제의 결속이 강할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예를 보여주면서 서두에서 얘기한 주제와 제제의 결속이 잘 이뤄진 작품임.
- ▶ 현철종 : 격월간 종합문예지 『현대문예』 2007년 7·8월호에 「먼 길」로 신인상 수상. 교육현장에서 가장 힘겨운 진학문제를 묘사한 작품으로 오로지 제자들의 진학로 개척만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바람직한 교육자상을 그려냄.
- ▶ 오용순 : 월간 종합문예지 『시사문단』 2007년 8월호에 「음식문화 그리고 예지」로 신인상 수상. 일상사들을 수필적 자아의 생각과 음식문화의 예의에 관해 구수하게 그려내면서 조상들이 지켜 온 음식예절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았음.
- ▶ 현민식 : 계간 종합문예지 『대한문학』 2007년 여름호에 「난을 치며」로 신인상 수상. 난을 치듯 수필을 하니, 그의 글 속에 단 반 뺨 속기 머무를 구석이 없으며 난

을 쳐놓고 벼를 불러 나눈 대화는 자체가 선문답임. 수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인 후반의 길고 운치 있는 대화체도 펍 인상적으로 구성의 묘를 얻었음.

- ▶ 김종식 : 월간 종합문예지 『시사문단』 2007년 10월호에 「맛난 만남」으로 신인상 수상. 주례의 경험을 살린 인생 체험을 다룬 것으로, 결혼의 행복은 부부의 가치관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움.
- ▶ 강인자 : 월간 종합문예지 『시사문단』 2007년 10월호에 「어머니의 메주 등짐」으로 신인상 수상. 어머니가 메주를 만들어 그 딸에게 전해준 것과 어머니 살아생전의 일들에 대한 생각을 매우 뛰어난 솜씨로 포착해 생생하게 적음.
- ▶ 김영춘 : 격월간 종합문예지 『한국문인』 2007년 10·11월호에 「이사」로 신인상 수상. 스승에 대한 존경심, 혹은 시간과 함께 하는 삶의 길에서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해야 하는 심정을 깊이 있게 조명함.
- ▶ 조양임 : 격월간 수필전문지 『수필과 비평』 2007년 9·10월호에 「홍어」로 신인상 수상. 톡톡 쏘는 홍어맛에 얽힌 에피소드를 담담하게 풀어냄. 홍어의 독특한 맛은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매개체요 화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유책이라 함.
- ▶ 김성훈 : 월간 종합문예지 『스토리문학』 2007년 12월호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로 신인상 수상. 절망에서 희망을 캐어낸다는 내용. 실업 이후, 이혼하고 점쟁이의 어이없는 충고로 삶의 나라까지 치달았지만 희망의 밥을 짓는다는 이야기.
- ▶ 강미자 : 종합문예지 『자유문예』 2007년 제15호에 「산행유감」으로 신인상 수상. 신화의 땅이요, 4·3 등 수난의 땅, 귀양의 땅 등 제주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산업화와 경제개발, 관광산업으로 폐허가 되어가는 제주를 세상에 고발하고 있음.

나. 제주수필 작품집과 기타 간행물들

- ▶ 『가시나무 자루』(서경림, 도서출판 디딤돌, 2007. 2.) : 세 번째 수필집. 신화와 역사, 수신과 제가 같은 흥밋거리와 법과 사회, 시민과 국가, 전쟁과 평화, 자연과 인간 들 목직한 주제의 글들을 담고 있다. 비석을 새기는 쇠뿔치와 더불어 40여 년

넘게 손에서 놓지 않았던 질긴 가시나무로 만든 자루를 통해 일제강점기, 해방 후의 혼란, 4·3사건 등을 온몸으로 겪은 아버지의 인생, 온갖 시름과 가시나무 자루에 패인 자국처럼 자식들에 대한 질긴 사랑을 가슴 저리게 읽어냈다.

- ▶ 『백록수필』(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백록수필문학회, 제7호, 2007.) : 40명의 수필 90편 수록. 문학평론가 안성수(제주대 교수)의 특별기고 「문학 언어와 수필 언어」가 실림.
- ▶ 『제주여류수필』(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6집, 2007. 6.) : 14명 회원 작품 수록. 중년의 꿈을, 길을, 마법의 시간을, 설렘에 대해서, 꽃을, 거울에 대한 단상을 14신 14색으로 풀어내고 있다. 제주여류수필문학회는 제주도에 등지를 틀어 살거나 제주도가 고향인 작가들이 모여 만든 제주 유일의 여성문학단체다.
- ▶ 『머물렀던 자리』(양수자, 도서출판 디딤돌, 2007. 1.) 두 번째 수필집. 45편의 수필들은 작가의 심성을 빼닮았다. 주제는 행복과 불행, 진실과 거짓의 파노라마이며 농촌생활 속에서 낭만적으로 글쓰기를 한다. 농부의 글 쓰는 작업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아울러 수반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 ▶ 『신구간』(이홍식, 경인사, 2007. 7.)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지낸 작가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써뒀던 글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신구간은 제주 고유의 이사철을 뜻하는데 이에 걸맞게 제주의 풍속, 풍물 등을 소재로 한 글들을 생활 속에서 담담하게 써냈다.
- ▶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강영민, 나우출판사, 2007. 8.) : 작가는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곳이 될 수도 있다.”며 “자기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너그러워지면 세상은 충분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된다.” 고 했다.
- ▶ 『장미의 이름으로』(김가영, 문학공원, 2007. 8.) : 여행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것들을 짧으면 짧은 대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쓴 글들을 담았다. 『남자 운이 좋은 여자』, 『왜 사랑하는가를 안다면』, 『꿈이 머무는 곳』 등 다수의 작품집이 있다.

- ▶ 『脈』(대한문학, 2007. 9.) : 동인 脈 창간호. 모두 48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2007년 6월, 워크숍을 통해 동인정신의 발양을 위한 작품발표회와 토론회를 가져 수필문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시도했다. 책머리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동인이란 이름으로 만났다. 아홉 사람은 혼돈을 흔들어 깨어나야 할 의식과 아름다운 질서의 빛, 외로운 영혼을 울릴 한 줄의 수필과 현실에 목마른 우리의 지적 갈증을 축여 줄 한 모금 물을 찾고 있다.”고 했다.
- ▶ 『돋보기를 닦으며』(고권일, 일출기획, 2007. 10.) : 두 번째 산문집. 「아내», 「돋보기를 닦으며»,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산행», 「다시 교육을 생각한다」 등을 소제목으로 60여 편의 글을 실었다.
- ▶ 『달빛은 천강에 비치더이다』(최현식, 푸른사상, 2007. 11.) : 저자가 1990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도내 일간지에 연재했던 글들과 나기철 시인의 「먼 산이 그리운 노작가」도 함께 실었다.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입도한 실향민으로 1957년 소설 『노루』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한 원로 소설가다. 15년 동안 제주신문 편집국장으로서 있었으며 예총제주도지회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 창작집으로 『홍상』, 『흑묘일기』, 『먼 산』 등이 있으며 1973년 제주도문화상을 받았다.
- ▶ 『상처 있는 영혼의 노래』(김찬집, 제주문화, 2007. 12.) : 4부로 구성돼 있는데, 1부는 삶의 단상들, 2부는 공조직의 정책을 좀더 깊이 생각하는 내용이고, 3부는 삶의 뒤안길에서 마주치는 이야기들이며, 4부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슬픈 노래를 담고 있다.

다. 수필가들의 작품상 수상

- ▶ 고길지 '한국문인상' 과 '탐미문학상' 수상 : 고길지는 수필집 『어머니』로 제8회 한국문인상을 수상했으며, 소설 「5월에 들려온 그대 목소리」로 탐미문학회가 제정한 탐미문학 본상도 아울러 수상했다. 제주출신 수필가이면서 소설가로서 한 작가가 수필과 소설 두 장르에서 문학상을 수상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 ▶ 김가영 '제주문학상' 수상 : 김가영은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강중훈)가 제정한 2007년도 제7회 제주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수필가로는 첫 수상이다.

1992년 등단 이후 13권의 수필집을 상재했다.

- ▶ 김길웅 '대한문학 대상' 수상 : 김길웅은 계간 종합문예지 『대한문학』이 제정한 '대한문학 대상(산문부)'을 수상했다. 서간체 연재수필 「제주에서 띄운 편지」를 지속적으로 연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6. 맺는 말

제주수필은 최근 작가의 양적 증가, 작품집 발행, 동인 단체의 활성화 등 이전에 비해 도도하고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위기야말로 수필문학 발전에 어떻게든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불어남에 비해 내면적 성숙이 불어난 몸피와 균형을 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작품의 질적 향상이 제주수필문단이 안고 있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 수필가들이 좀더 내공을 쌓아간다는 과제를 떠안아야만 할 것이다.

수필가들의 머릿속에는 수필을 쓰는 것은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사실 별것 아닌 게 맞는 말일지 모른다. 문제는 별것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수필창작의 길이 아닌가 싶다. 어떻게 하면 독자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수필을 쓸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글 / 김 길 웅(시인, 수필가)

원로 작가들의 분투를 보라

2007년의 제주소설은 예년에 비해 양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소득을 보였다. 세 명의 작가가 두 권의 장편과 한 권의 소설집을 출간했다. 그 중 고희를 앞둔 한 원로 작가는 2006년도에 두 권의 작품집을 냈는데 2007년도에 역시 소설집을 출간하는 놀라운 창작 열의를 보여주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펜을 놓고 있던 한 원로 작가는 그간 지면에 발표한 글들을 모아 산문집을 내놓았고, 칠순의 재미 번역가는 톨스토이 소설을 번역해서 노익장을 과시했다. 또한 앞으로 제주소설을 이끌어 갈 늦깎이 신인 세 명이 등장하였다.

1. 2007년 출간된 소설

작가는 자기가 속한 세상 혹은 자신의 내면에 저장된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서 또 다른 세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흥미롭게 구축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경험한 시대상황이나 공간은 작가의 내면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결국 소설이라는 건축물의 터가 되기도 하고, 주춧돌이 되기도 하며, 기둥이나 들보가 되기도 한다. 이는 작가가 서 있는 과거와 현재의 환경이 결국 작가를 지배하고 그것은 다시 작가의 작품에 필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걸 역으로 펼치면 고난과 꺾박의 시대를 오롯이 거쳐 온 작가는 그렇지 않은 작가보다 그만큼 소설적 자산이 풍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일까? 섬이라는 지정학적 고립에 맞물린 근대사의 아픔과 상처까지 고스란히 몸으로 체득한 원로 작가들의 활약이 근래 들어 부쩍 돋보인다.

오성찬은 발표한 10편의 중편과 단편을 묶어 소설집 『꽃상여』를 펴냈으며 세상사의 과

거와 현재, 격변하는 사회 속의 일터와 쉼터, 그리고 종교까지 아우르는 소재를 버무려서 다양하고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2007년에 출간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오성찬, 『꽃상여』, 푸른사상, 2007. 7. 15.

김영주, 『우리는 아름다울 수 없을까』, 아름다운 사람들, 2007. 9. 20.

강병철, 『푸른소』, 제주문화, 2007. 8. 30.

▶ 오성찬, 『꽃상여』

제주작가 중에서 근래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를 꼽는다면 오성찬이 아닐까 한다. 그는 고회를 앞둔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창작 열의를 보이며 거의 매년 작품집을 묶어내고 있다. 2005년에는 장편소설 『아아 삼별초』와 산문집 『나비가 오지 않는다』를 출간했고, 2006년에는 『바람난 마을』과 『슬픈 몽골반점』 등 두 권의 장편소설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오성찬 문학선집』 11권을 묶어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런 그가 2007년에도 쉬지 않고 소설집 『꽃상여』를 출간했다.

『꽃상여』는 작가가 2003년 이후 발표한 중·단편 10편을 묶은 것이다. 표제작인 중편 「꽃상여」는 칠십 평생을 바다에 몸을 맡겨 물질을 해온 잠수의 이야기다. 발표 당시에는 「떠돌이 잠수들의 마지막 노래」였으나 책을 내면서 개제했다. 작가는 책머리에서 “나는 최근 온 생명을 내던져 진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어머니, 잠수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로 『보چه기들은 밤에 떠난다』와 『가쁜 숨비소리』 등의 작품들을 통해서 잠수들의 애끓는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바 있다.

『꽃상여』에는 그 밖에도 고향 변화의 부정적인 면을 담담하게 그린 「달 뜨는 내 고향」, 실제 감귤을 싣고 북한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의지를 담은 「회색의 제국」, 지역의 역사와 사회성을 반영한 「신단에서 보물 찾기」, 「연못 설화」, 「운동장 엘레지」, 소록도 환자들이 겪는 처절한 아픔과 갈등을 그린 「동상 혈기」,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쓴 「그이가 이루신다」, 「겨울 함박눈」, 그리고 작품 발표 후 잊어버렸다가 어느 독자가 보내서 살려낸 「겨울 여행」 등이 실렸다. 그는 이 소설집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제4회 박영준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성찬은 1940년 서귀포에서 출생했다. 1969년 중편 「별을 따려는 사람들」이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한 이래 『한라산』, 『어두운 시대의 초상화』, 『진혼

아리랑』,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등의 소설집과 『크는 산』, 『세한도』, 『종소리 울려 퍼져라』,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 『바람난 마을』, 『아아, 삼별초』, 『슬픈 몽골반점』 등의 장편소설이 있다.

▶ 김영주, 『우리는 아름다울 수 없을까』

〈제주신문〉과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김영주는 2007년 월간 『문학저널』 신인상에 소설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온 신인 작가다. 그가 등단하자마자 장편소설을 들고 나왔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친구의 숨겨둔 추억을 훑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관념의 미학이든 감상적인 충동이든, 아니면 가치의 확신이든 자기 재생의 과정이든 간에,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앓아도 좋을 흥측하지 않은 발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그것은 사랑이야말로 시공간적으로 제한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한성까지 인정하면서 낮은 자세에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 성숙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있다. 첫사랑을 배신하고 결혼한 뒤 옛일을 후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박민수, 그런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혼 후 동거라는 파행을 결심하는 오세정, 오세정의 ‘상처’마저 사랑하는 윤태영, 그리고 떠나 버린 첫사랑 박민수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다 급기야 죽음을 택하고 마는 짝은교. 작가는 작품에서, 먼 길을 돌아와 만난 사랑, 그러기에 감내해야 할 현실의 벽. 네 사람의 엇갈린 운명과 죽음, 그리고 한 남자의 성숙한 사랑. 회한과 후회를 남긴 지난 모든 사랑을 엮고 갈만큼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고도 멋지게 마지막 사랑을 가슴 속에나마 묻을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있다.

“사랑이라는 낱말 자체가 슬프잖아. 따뜻하고 포근하고 감미롭고 달콤한 듯하지만 종국은 이별이니까. 죽어서라도 헤어지니까. 어느 한쪽 가슴에 영원히 새겨지고 남는 다 해도 신나고 들뜨고 하지는 않을 거 아냐? 아마 아프게 자리하겠지.”(본문 중에서)

문학평론가 송상일은 “이 소설 속의 남녀관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애는 애써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평균대 위의 체조선수처럼 위태롭다.”면서 “연애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미리 맛보는 달콤함, 쓰라림, 혹은 허무함의 미각이며 그런 연애를 영원히 영위하는 길은 결론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김영주는 서귀포 출신으로 오현고와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주신문기자, 서울신문

기자를 거쳐 한국기자협회 제주도지부장을 역임했다.

▶ 강병철, 『푸른소』

강병철의 『푸른소』는 김수길과 이연수라는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물들이 이들과 관계를 맺고 헤어지는 에피소드들로 연결되어 있다. 두 노인의 관계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서사 이외에 독특하고 의외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예컨대 제주 설화에 나오는 전국태의 이야기와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팔선(八仙)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작가는 김수길과 이연수 노인의 이야기와 제주 설화 속의 인물과 팔선의 이야기를 서로 병치시키며 소설의 스토리를 이끌어 간다.

작가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다른 세계, 그 중에서도 특히 신선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지난 몇 년간 노력했다.”며 “소수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은 제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3년 제주문인협회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2. 신인 작가의 등장

역량 있는 신인 작가의 출현을 고대하던 제주 소설에 세 명의 늦깎이 신인 작가가 등장했다. 특이한 점은 그 중 두 명은 이미 타 장르로 등단하여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이라는 점이다.

▶ 안춘식

월간 『시사문단』 2월호 소설부문 신인상을 받아 등단한 안춘식은 이미 『문학세계』 수필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해서 제2회 제주기독교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당선작은 단편 「성천봉의 종소리」로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간지 보도내용을 토대로 해서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소설로 꾸민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소설의 전개, 주인공과 배경인물의 구성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상상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며 “문체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상황과 시간을 잘 접목시키는 등 구성 요소도 탁월하다.”며 모처럼 소설다운 소설을 만났다고 평했다.

▶ **홍창국**

홍창국은 『순수문학』 7월호에 단편 「신을 빌린 남자」로 소설부문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다. 1998년 시로, 1999년에는 수필로 등단한 그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나(박훈 처장, 시인)의 취중의 열정어린 행로는 흥미 있는 서사적 화소로 술이 서사를 일탈케 하고 견인하여 가파른 현실을 탈출해 그 먼 오묘한 안식처를 찾아가는 중심축을 이뤄 허구적 서사의 리얼리티를 형성해 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04년 세계계관시인문학상 대상, 2006년 제14회 한국순수문학상을 수상했다.

▶ **김영주**

전직 언론인 출신인 김영주는 『문학저널』 신인상에 「7병동 13호실」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단편 「7병동 13호실」은 단순한 사고로 눈을 다친 주인공이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면서 주변 환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의학적 전문지식과 병실의 상황을 오늘의 정치현실에 절묘하게 빚댄 신인작가의 뛰어난 감각이 느껴진다.”면서 “소재의 참신성, 이를 주제 안에 녹여내는 문장의 형상화가 빼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3. 그 밖의 소득

▶ **최현식 산문집 『달빛은 천강(千江)에 비치더이다』(푸른사상, 2007. 11. 15.)**

팔순을 훌쩍 넘긴 최현식 원로 작가가 그동안 신문이나 잡지에 썼던 글을 모아 산문집을 출간했다. 그가 책머리에서 밝혔듯이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며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출판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닷과 인인(隣人)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1924년 함경남도 홍원 출생인 최현식 작가는 195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노루」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와 『홍상』, 『흑묘일기』, 『먼 산』 등의 작품을 썼다.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제주신문 편집국장을 지냈고, 한국예총제주도지회장을 역임했다.

▶ 재미 번역가 정문길, 톨스토이 소설 번역 · 출간

번역가 정문길이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룸미디어, 2007. 2. 15.)을 번역 출간했다. 성산읍 신양리 출신인 그는 직업군인으로서 이란 왕실의 경호책임자로 일하는 등 다양한 인생 경험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뒤 현재 번역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이 번역소설을 제주문인협회에 100여 권 기증했다.

4. 마무리

여기서는 소설에 대한 현학적인 공허한 외침을 접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 현재 제주소설은 원로 소설가들의 필력에 의지해서 명맥을 유지해 가는 형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제주소설의 위기는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세대의 단절로 인한 구성원의 불균형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제주소설에는 지금 사십대 이전의 팔팔한 젊은 작가가 한 명도 없어서 작가들의 연령대로만 보면 중견과 원로 작가만 있는 묘한 구조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젊은 작가들이 가진 특유의 에너지며 돌파력, 좀 서툴지만 당돌함이 오히려 미덕인 작품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사십대 이후로도 충분히 팔팔할 수 있고, 더구나 나이로 소설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앞으로 제주소설을 이끌어 갈 젊은 작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주소설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고민의 시작은 아무래도 중견 작가들이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중견들은 원로 작가들의 분투를 거울삼아 훌륭한 작품, 독자가 찾아 읽는 작품을 많이 써서 제주소설이 살아있음을 작품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작가도 살고 제주소설도 다시 부흥기를 향해 달리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등단하자마자 바로 장편소설을 출간한 ‘당돌한’ 신인 작가 김영주와, 나이로 보아 제주소설의 막내에 해당하는 강병철 작가, 그리고 타 장르에서 활동하다 늦깎이에 소설로 ‘전향’한 홍창국, 안춘식 작가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 글 / 오을식(소설가)

끝없는 상상의 세계, 2007 제주아동문학

1. 아동문학, 누구를 위한 문학인가?

독서·논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출판사들이 아동문학에 눈을 돌리고 있다. 물론 일부 지각있는 출판인들의 시각이지만 아동문학이 차세대를 이끌 인재를 기르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조앤 롤링이 작년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로 마감한 해리포터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세계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이라는 평까지 받고 있다.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독서 열풍에 빠져 있다. 판타지 아동문학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아동문학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운문이나 산문이나만 구분할 뿐 아동문학을 하나의 따로 문학장르로 구분하는 나라는 동양 몇 개국에 불과하며 그것은 결국 아동문학은 독자가 아동일 뿐이라고 한정하는 몰상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아동문학은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 모두의 문학이라 해야 옳다. 7권까지 마감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 발간한 해리포터시리즈는 아동보다 성인들에게 더 읽히고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아동문학이란 어린이를 주 독자로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동문학이 주 독자가 아동일 뿐이지 동심을 가진 어린이다운, 어린이의 고운 심성을 닮으려는 성인들에게 읽히기 위해 쓴 모든 작품을 말한다.

문학의 본질에 바탕을 두면서 어린이를 위해, 동심을 가진 어른을 위해 쓰여진 특수문학으로써 동요, 동시, 동화, 소년소설, 아동극 등의 장르를 통틀어 아동문학이라 해야 옳다. 이렇게 중요한 문학장르인 아동문학 작품은 『삼국유사』에도 나온다. 서동(후에 백제 무왕이 됨)이 신라 26대 진평왕 때 지었다는 민요 형식의 「서동요」도 아동문학이요, 이

후 개화 이전기, 개화기를 거치면서 「녹두새요」, 「붉은 저고리」, 「해에게서 소년에게」 등은 아동문학의 효시로 보고 있다. 그 후 1923년 마해송은 「바위 나리와 아기별」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화를 발표했으며,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팽창해 지금은 2,000여 명이 넘는 아동문학가가 활동하며 현대 감각에 맞는 아동문학 작품 창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도 40여 명의 아동문학가가 중심이 돼 제주의 독서운동에 구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 40여 명의 아동문학가 중에는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글의 세계, 끝없는 상상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중심에서 있다. 동시·동화를 읽고 느끼고 생각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독서·논술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만 접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학부모들에게 도민들에게 동시·동화를 읽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제주의 아동문학가들이다. 최근들어 <동화읽는 어른 모임>, <동시낭송 학부모 모임> 등의 모임이 지역별, 학교별로 다양하게 조직되고 있는 현상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아동문학은 미성인이거나 읽는 것이라는 통념을 깨는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동심을 가진 성인을 위한 순수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의 아동문학가와 2007 제주아동문학협회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제주아동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2007 제주아동문학협회의 주요활동

가. 제주아동문학협회 활동

1) 연간집 『도깨비똥』 발간

제주의 문학동인회 중에서 제주아동문학협회처럼 꾸준히 연간집을 발간하고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동인회도 그리 흔치 않다. 특히 제주아동문학협회 연간집은 탐라문화제 때 우리고장 작가 창작집 독후감 공모 등을 통하여 알려짐으로써 매년 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인부문 독후감 공모도 실시하여 독자층을 넓혀 가고 있다. 동시와 동화부문 회원, 명예 회원을 포함하여 34명이 활동하고 있는 제주아동문학협회의 주

요 사업으로 1981년 창간호 「새벽」을 발간한 이래 올해 스물여섯 번째 연간집인 『도깨비똥』(영주문학사, 2007. 7.)을 발간했다.

아름답고 싱그러운 아동문학의 숲속에서 풋풋한 글내음과 꽃향기를 맡으며 크고 고운 꿈을 가꿔나가길 바라는 제주아동문학협회장(고운진)의 발간사를 시작으로 풀잎에 구르는 이슬처럼 맑고 고운 동시 53편과 아름답고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9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간집에 발표한 작가는 동시에 장승련, 이양수, 이명혜, 이맹수, 오지연, 양길주, 송상홍, 박희순, 김희정, 김출근, 김영기 등이며 동화에 한천민, 장영주, 장수명, 이동수, 박재형, 김정애, 김봉임, 고운진, 강순복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독자들에게 다가갔다.

[수록 동시]

장승련, 「농구하는 빗방울」, 「교실로 날아온 새」, 「섬표, 내 마음 아는 걸까?」 등
 이양수, 「오름일기 1, 2, 3, 4, 5」
 이명혜, 「벚꽃」, 「햇빛부자」, 「4월의 달력」, 「운동장에서 있는 팽나무 한 그루」
 이맹수, 「누구일까?」, 「다툼 날」, 「1등 엄마」, 「할머니... 34」, 「시골학교」
 오지연, 「제주 물」, 「부채」
 양길주, 「일기」, 「우리학교 도서관」, 「수학여행」
 송상홍, 「원숭이」, 「느껴 봐」, 「잔물결」, 「눈부처」, 「사리」, 「고단할 땐」, 「가꿈은」
 박희순, 「기침에게」, 「네모 칸 공책속에서, 홀라후프 돌리는 운동장」 등
 김희정, 「우리아기 잘도 잔다」, 「바다 글」, 「제비네 집」, 「대청소」, 「건망증 땀에」
 김출근, 「산과 바다 아우르는 별도봉」, 「꽃바구니 든 벚꽃」, 「호기심 천국 아가」 등
 김영기, 「붕어빵」, 「아빠의 건강 지킴이」, 「전자칩을 하고」, 「우선 멈춤」 등

[수록 동화]

한천민, 「키작은 나무」
 장영주, 「유채꽃」
 장수명, 「내 별명은 아엠소리」
 이동수, 「나무야, 연필 나무야」
 박재형, 「행복한 허수아비」
 김정애, 「도깨비똥」
 김봉임, 「네잎 클로버」

고운진, 「삭정을 만드는 나무들」

강순복, 「금빛 아프리카」

2) 찾아가는 아동문학교실

2007 제주문예진흥기금 별도공모지원사업(우수 문학행사)으로 열린 제10회 찾아가는 아동문학교실을 '남원읍에 문학의 향기를'이라는 부제를 달고 실시하였다. 이번 아동문학교실은 2007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남원읍 의귀초등학교 책고을도서관에서 실시되었다. 남원읍 지역 학생, 학부모 50여 명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아동문학의 세계에 빠져 시와 동화 작품 감상능력과 글쓰기 능력, 논리력을 키워 아름답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 교양인을 기르고 독서논술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행사였다. 강의와 토의학습으로 이루어진 이번 아동문학교실의 첫째날은 동시 감상(장승련), 시 감상, 이 좋은 공부(송상홍), 학년별 독서방법(오수선), 둘째날은 새콤달콤 맛있는 동화(장수명), 동화 구연(안희숙), 제주설화를 찾아서(박희순) 등의 강의와 토론 학습이 있었으며, 8월 8일 마지막 날은 문장쓰기의 실제(김정애), 술술풀리는 논술(김희정), 아동문학 특강(고운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폐강식에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과 표창이 주어졌다.

3) 우리고장 작가 창작집 독후감 공모

제46회 탐라문화제 행사로 치러진 우리고장 작가 창작집 독후감 공모와 시상이 있었다. 애향심과 제주인의 긍지를 길러주고 제주도민의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이 행사는 탐라문화제 때마다 참가하여 제주아동문학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제주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부와 학부모부로 나누어 공모한 이번 행사에는 최우수상에 도지사과 교육감상이 주어졌고, 성인부는 제주작가가 쓴 작품이면 모두 가능했다. 어린이부는 지정도서로 협회 연간집 『도깨비똥』, 김봉임의 『뽀뽀꾸꾸의 망원경』, 박재형의 『이어도로 간 해녀』, 김정애의 『형제는 함께 달리는 거야』 등 5권을 선정해 전도 어린이들이 써낸 독후감 약 1,200점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동시, 동화 각 부문별 최우수 1명, 우수 10명, 가작 20명, 장려 30명이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탐라문화제 기간인 10월 11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품 낭송회도 개최하였다. 동시 최우수 신광교 안성은, 동화 최우수 노형교 강유나 등 97명이 수상하였으며, 학부모부에서는 동화 최우수 노형교 김신자 씨, 동시부문 최우수 백록교 김향란 씨가 수상하는 등

학부모 20명이 수상했다.

4) 초등학교원과 학부모를 위한 독서논술 세미나

‘읽는 기쁨 쓰는 즐거움, 독서논술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을 받고 치러진 2007년 특별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의 강화 차원에서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독서논술 지도법을 소개함으로써 제주도에 초등 독서논술의 씨앗을 뿌리는 단초가 된 행사였다.

이 세미나는 2007년 12월 21일(금)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는데 제1주제 ‘초등학생들의 독서 무엇이 문제인가?’ 시간에는 심후섭 교육학 박사의 주제발표와 토론, 제2주제 ‘독서 논술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최지훈 아동문학 평론가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주도내 초등학교사와 학교장 등 80여 명과 학부모 60여 명 등 140여 명이 참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며 초등학교 독서논술교육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중요한 행사였다. 후원에 힘입어 실시한 특별사업이어서 연속적 측면에서 불투명하나 앞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세미나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다.

5) 아동문학의 밤

2006년까지는 탐라문화제 행사로 실시하여 오다가 2007년부터는 그 행사 기간에는 우리고장 작가 창작집 시상과 우수작품 낭송만 하고 아동문학의 밤은 연말에 개최하기로 하여 송년회를 겸한 아동문학 결산행사를 개최하였다. 12월 21일 실시한 아동문학의 밤 행사에는 제주문인협회 강중훈 회장과 임원들을 포함하여 내빈들과 제주아동문학협회 회원, 문학평론가 최지훈 선생, 아동문학가가 심후섭 선생 등이 참가하여 협회의 앞날을 축하해 주었다. 이날 행사는 신입회원 양순진(동시), 김정희(동화)의 환영행사와 연간집 발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긴 박경호 명예회원에 대한 감사패 증정, 첫 창작집 출간에 따른 축하패 전달의 순으로 이어졌다.

6) 기타 활동

□ 여름문학 창작교실 참가

제주문인협회 주최로 실시한 찾아가는 문학 강좌가 일도2동 문화의 집에서 시, 소설, 아동문학, 수필 장르를 가지고 일도2동 주민을 위한 문학강좌가 실시되었다.(2007. 5. 17.~7. 12.) 시(고훈식), 소설(정순희), 아동문학(고운진), 수필(김가영) 강좌가 있었는데

데 아동문학부문에서는 ‘아동문학의 이해’, ‘독서논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아동문학과 독서논술을 생활화하기 위한 강좌를 개최하였다.

□ 아동문학동인 <동화섬> 활동

제주아동문학협회 장영주 회원이 창립한 문학동인으로 아동문학의 전국화에 노력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전래동화를 한데 묶는 행사를 매년 꾸준히 개최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문학동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07년 12월 26일 한라수목원 야외무대에서 「한라와 백두의 옛이야기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면서 남과 북의 전래동화를 통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 행사에 이어 제6회 남북전래동화구연대회 상위 입상자, 학부모, 행사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 처음으로 북한 개성에서 「북한전래동화구연대회」가 열려서(2007. 12. 27.) 남북의 단절된 역사를 하나로 잇는 의미있는 행사도 개최하였다.

□ 제주펜문학활동

제주펜무크지가 전 세계에 번역 보급되면서 제주아동문학협회에서도 펜회원인 두 작가가 작품을 발표하여 전 세계로 제주아동문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07년 12월에 발간된 제주펜무크 4집 『잠들지 않는 한라산(Sleepless Mt.Halla)』에 박재형, 강순복 회원이 동화를 발표했다. 이 무크지에는 박재형 회원의 작품 「어머니의 손」과 강순복 회원의 작품 「푸른 아이들의 천국」 등 2편의 동화(제주대학교 최연홍 교수 번역)가 실렸다. 「어머니의 손」은 주인공 재현이가 바라보는 어머니의 손을 통하여 겪는 가족간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옛 제주농가의 풍경묘사가 잘 되어 있어 제주의 세계화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 아이들의 천국」은 아름다운 선반대를 테마 관광도로로 만들려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과 서귀포를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완성 천국을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 북페스티벌 참가

제46회 탐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주문인협회에서는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2007. 10. 5.~10. 10. 제주시 탐동광장)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장르별로 실시한 이번 페스티벌은 10월 9일을 ‘아동문학의 날’로 정하여 탐동광장을 찾은 도민과

학생들에게 작가 팬 사인회는 물론 창작도서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였다. 제주아동문학협회 회원이 창작한 창작집 등을 전시하고 판매한 수익금은 다른 장르의 판매액과 합해 태풍 나리 피해 성금 등으로 전액 기부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 한중일 동화작가 교류대회 참가

제주아동문학협회 김정애 사무국장이 협회창립 이래 최초로 한국 대표로 한중일 동화작가 교류대회에 참가하였다. 일본 동경 나가노현에서 7일간(8. 17.~8. 23.) 열린 대회에 김영철(경기)을 단장으로 하여 박주연(교육부), 류석환(부산), 김정애(제주) 등 4명이 참가하였는데 김정애 사무국장이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동화작가인 김정애 사무국장은 한중일 3국의 유사한 전래동화를 소개하는 순서를 맡아 동화를 구연하였으며 독서지도에 관한 세미나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등 한국의 독서교육 및 문학교육 활동에 대해 아시아에 제주아동문학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나. 회원 창작집 발간

▶ 김정애 장편동화 『형제는 함께 달리는 거야』

김정애 동화작가가 장편동화 『형제는 함께 달리는 거야』를 발간하였다. 단편소설도 쓰고 있는 작가는 탄탄한 문장력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로 해체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늘어가는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이 출현하는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그린 이 작품은 부모를 잃은 어린 형제가 할머니, 삼촌, 베트남인 외숙모 등 낯선 친척들과 가족을 이루면서 겪는 아픔과 갈등을 슬기롭고 아름답게 이겨내는 형제애를 그리고 있어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으며, 탐라문화제 우리 고장 작가 창작집 독후감 공모에서도 가장 많이 읽힌 작품으로 뽑혔다. 단편소설 「선달 그림밤」으로 교원문학상을 받기도 한 작가는 2004년 아동문학평론 신인문학상에 동화 「또또의 붉은 조끼」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고 현재 제주아동문학협회 사무국장이며 함덕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 김미희 동시집 『달님도 인터넷해요?』

현재 울산 동여중 사서교사로 있는 제주출신 아동문학가 김미희 씨의 첫 동시집이다. 이 동시집에 실린 65편의 동시들은 작가의 동심에서 발효된 묘한 호기심과 이끌림이

동시의 연과 행간에 꼭꼭 숨어 있으며 시원스럽고 구김없는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작품 평을 받고 있다. 아이들판에서 발간했으며 작가의 투명한 눈으로 동심의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가슴 찡한 동시들이 많이 실려 있다.

“눈이 부시도록 뜨거운 한낮이에요/까치 한 마리 춤을 추듯 살랑대며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자 땅에서도 까치 한 마리 날아가고 있어요/깃털과 몸짓까지 하늘까지 닮은 땅까지 예요/검정바탕 하얀 줄무늬 옷 대신 검정 코트 걸쳤어요/그런데 보셔요 땅까치가 기어가는 벌레는 보고도 잡아먹지 않고 가슴에 살땀 품어 주었다가 가는 것을.”(「까치 그림자」 전문)

▶ 장수명 그림동화 『내 이름은 아임소리』

서귀포시 남원읍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는 동화작가 장수명은 제주아동문학협회회원 중 몇 안 되는 전업작가이다. 출간하자마자 어린이와 학부모 독서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표제작인 「내 이름은 아임소리」는 조기 영어과외의 열풍에 내몰린 초등학교생의 모습을 담은 동화이며, 이 표제작 외에도 「꽃이 된 작은 돌」, 「술 빛는 날」, 「행복한 손수건」, 「할머니 가구기」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 특히 「행복한 손수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예지 우수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출판기념 및 원화전이 서귀포 김정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으며 전시기간 중 저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도 개최했으며 수익금 전액은 어린이 보호시설과 도서지역에 책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2004년 제주신인문학상을 받은 이후 아동문예, 아동문학평론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작가는 현재 꾸준히 작품창작에 몰두하면서 장단편 동화와 그림동화를 집필 중이다.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면서 외연을 넓히고 있으며 특히 부군인 서양화가 김품창 씨의 그림과 동화가 만나면서 독자층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호수에 갇힌 달님」이란 동화로 새벗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신인작가에서 아동문단의 중견 작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 송재찬 설화집 『설문대할망』

「돌아온 진돗개 백구」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동화작가 송재찬이 발표한 이번엔 제주출신 작가답게 『설문대할망』을 출간했다. 이 세상이 생기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는 천지창조 신화이기도 한 이 책은 설문대 할망의 초월적인 힘을 빌어 제주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은 바람의 표현이기도 하다. 내용에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대한 자부심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욕지로 향하려는 욕망으로도 나타나면서 제주도의 내력을 이야기 자체로 이끌어 내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향토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기도 한 작품집이다. 정겹고 아름다운 문체가 읽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을 배가 시키는 좋은 책이다.

▶ 박재형 점자도서집

동화작가 박재형은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관장 김세희)의 도움으로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점자 도서를 출간했다. 점자 도서로 발간된 작품은 『검둥이를 찾아서』와 『누렁이를 삼켜버린 안개산으로』 등 두 편이다. 연작 성격의 두 작품에는 설문대할망, 백록담 신선 등 제주섬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설화 속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서양신화에 가려졌던 제주신화 속 인물들을 점자로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섬 사람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삶을 엿볼 수 있으며 제주설화가 주는 재미와 함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선물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점자도서는 전국 점자 도서관과 맹학교 등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박재형은 1970년대에 등단한 이래 『이어도로 간 해녀』, 『내 친구 삼레』, 『검둥이를 찾아서』 등 여러 편의 장편동화와 단편들이 재미와 함께 감동을 주고 있어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작가이다.

▶ 양길주 수필집 『여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제주아동문학협회 회원인 양길주 작가가 수필집 『여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출간했다. 1997년 아동문예로 동시부문이 당선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가가 2005년 문예사조를 통해 수필가로도 문단에 등단한 이후 낸 첫 수필집이다. 이번에 발간한 수필집은 여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남자로서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내용과 아울러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여행지의 추억을 들려주는 주옥같은 수필이 8부로 나누어 총 60여 편이 실려 있다.

다. 수상 현황

▶ 박재형

박재형 장편동화집 『이어도로 간 해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년 1분기 우수문

학도서(아동청소년문학부분)에 선정됐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과 6·25 한국전쟁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아라는 한 해녀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일관된 주제를 형성해 제주해녀들의 삶을 압축한 장편동화이다. 척박한 섬 제주땅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가정을 지킨 어머니, 해녀들의 강인하고 소박한 삶이 잘 드러난 책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해녀조합을 조직해 해녀들의 권리를 빼앗아간 일본의 악덕 상인들과 맞서 싸웠던 세화리 해녀항쟁사건을 다루면서 해녀의 생존권과 인권의 문제에도 천착한 작품으로 인정받아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 **고광자**

시인이며 아동문학가인 고광자는 동시집 『밤하늘에 걸린 바나나』로 제6회 한국아동문학창작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11월 24일 한국아동문학연구회가 선정한 동시집 『밤하늘에 걸린 바나나』는 제주도에 살면서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며 표제작 「밤하늘에 걸린 바나나」는 밤바다 밤하늘에 떠있는 초승달을 보며 어린아이가 바나나라고 하는 실제 행동과 언어에서 아동의 마음이 되어 묘사해 낸 우수작이다. 일본어로도 번역된 이 동시집은 한국아동문학의 세계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작가 고광자는 제주 애월에서 태어나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문인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이고 한국아동문학연구회 평론분과 회장, 서울·제주해송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장수명**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현재는 서귀포 남원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동화작가 장수명은 「호수에 갇힌 달님」으로 제24회 새벗문학상을 2007년 2월 1일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 명절이 다가오자 명절 증후군까지 앓게 되는 며느리들이 달을 보고 몹시 못마땅해하며 원망을 하게 되고 그 모습에 화가 난 달님이 호수가 있는 동굴로 도망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추리적 기법으로 쓴 판타지 동화이다. 작가는 『동백꽃』, 『도깨비 대장이 된 훈장님』, 『내 이름은 아임소리』 등 다수의 창작동화집을 출간했으며 서귀포 신문에 동화연재는 물론 제민일보 생활칼럼도 연재 중이다.

▶ **강순복**

강순복의 「할아버지의 전쟁이야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4분기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상패와 작품활동 지원금을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예지 우수작품지원추진단(단장 권혁웅)은 10월 1일 제3차(2/4분기) 문예지 게재우수작품 지원대상작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발표된 시, 시조와 소설, 동시와 동화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1차, 2차 심의를 모두 통과한 「할아버지의 전쟁이야기」를 동화부문 우수작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 작품은 제주도의 아픈 4·3사건을 통해 주인공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집 두 자손 남녀가 결혼을 하려 하지만 도저히 용서하고 화합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며 4·3사건을 알아간다는 내용이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결혼이라 주제를 갖고 4·3사건을 쉽게 풀어 동화화 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이다.

강순복은 1994년 문예사조에서 「네 발로 걷는 아이」로 등단한 이래 「키 크는 요술안경」, 「네 발로 걷는 아이」, 「바이킹을 탄 엄마」, 「종이피아노」, 「개구리 침대」 등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아동문학협회 부회장, 제주문인협회, 국제펜클럽회원, 한국아동문학회 이사로 있다.

▶ 양순진

동시를 쓰고 있는 양순진 회원이 2007년 제주신인문학상 동시부문에 「어머니의 일기장」이 가작으로 뽑히면서 제주신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체험과 느낌을 압축 표현하는 문장력으로 보아 습작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고 시 또한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받았으며 수상작은 일기장 속에 베어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가족 행복 찾기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진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독서논술지도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작품창작에 몰두하고 있으며 새삼독서회, 제주아동문학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3. 제주아동문학의 현실과 과제

요즈음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아동도서의 경우 알팍한 상술에 넘쳐나는 도서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판매량을 의식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작품이 서점가의 앞부분을 장식한다. 제주의 아동문학가들은 앞으로 알팍한 웃음거리만 주는 작품이 아니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예술성이 높은 작품창작에 좀 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각종 문예지가 300종이 훨씬 넘고 월간지인 경우 한 달에 수명씩 등단시키는 문학잡지가 수도룩한 게 현실인 요즘의 아동문학이 순수 예술 장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잡지의 소매상으로 전락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독자들만을 위한 치열한 창작열을 불태워야 할 것이다.

이에 문학을 하는 우리 모두는 반성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일, 내가 발표하는 글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독자들 곁으로 나가고 있는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 제주아동문학협회는 앞으로도 개인 창작집 발간, 연간집 발간, 아동문학교실 등 많은 행사를 좀더 발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연간집만큼이라도 철저한 토론과 작품합평회를 통해 발간할 것이며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가는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글 / 고 윤 진(제주아동문학협회장)

제주문학, 비평의 활로 모색

- 평론이 큰 일 찾아 나설 때 -

1. 머리글

연감 간행의 주된 목적은 당해연도에 일어난 시사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각종 통계 등을 수록하기 위해서 한 해 한 번씩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 문학 특히 평론분야에서는 평론가들의 미확인 인맥들이 현저하고 또한 그들의 미확인 활동사항들 때문에 연간통계란 매우 힘든 형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편집자와 협의하에 제주문학의 다음 준비를 위한 원고에 한정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출신 인맥들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을 위한 기록을 기약한다는 의미에서 제주문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2. 제주문학의 위기

제주의 문학은 언제부터 출발되었는가? 시(詩) 분야에서는, 1954년 11월 김대현의 시집 『청사』를 시작으로, 1959년 2월에는 김종원의 「달의 시업」(사상계)으로 등단했고, 1959년 7월 양중해의 「그늘」(사상계)로 문을 열면서 태동기를 맞는다. 또한 1965년 1월 김광협의 「강설기」(동아일보)와 1966년 7월 김용길의 「대망」(문학춘추)으로 각각 데뷔하면

서 제주문학은 발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설(小說) 분야에서는, 1957년 1월 최현식의 「노루」(조선일보)와 1963년 6월 강금종의 「상흔」(자유문학)으로, 1969년 1월 오성찬의 「별을 따려는 사람들」(신아일보)로 문단에 데뷔하면서 제주문학의 분위기는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했다. 일약 중앙문단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별난 것이다.

그리고 문학평론은, 1961년 6월 박철희의 「에로스와 아가페의 의미」(현대문학)를 시작으로, 1967년 1월 김영화의 「동인소설의 구조」(중앙일보), 1968년 11월 김시태의 「현대시의 좌표」(현대문학)로 등단하면서 제주의 문학은 서서히 성숙기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1976년 1월 송상일의 「한국적인 것의 순환적 이해」(중앙일보)와 1978년 5월 김병택의 「의식의 향방」(현대문학), 7월에는 「시인의 현실과 자유」(현대문학)가 발표되면서 제주비평의 진가 역시 완숙기의 흐름을 타게 된 것이다. 결국 제주문학은 근대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960년대나 1970년대를 주요 배경으로 설정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시 수필 할 것 없이 무절제한 작품들의 지나친 양산으로 제주문학의 질적 문제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말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시는 서정적이라면 비평은 리얼할 수밖에 없다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는 제주문학의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시인이 써야 하고, 소설은 소설가가 써야 한다는 아주 원초적인 논리에 접하고 있는데 결국 창작은 나름대로의 작법이 엄격히 존재한다는 의미도 된다. 또한 문학에 대한 이해도 그렇지만 작법상의 기초도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일반적이다. 순수성 상실이다. 그래서 비평시각은 언제나 긴장되어 있다. 그리고 리얼할 수밖에 없다는 초조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산업구조의 욕구로 인해 다가선 도서출판의 현실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나타난 종이책·전자책 구조들 역시 예술에 대한 인식마저 위기로 몰고 있다. 제주문학의 위기를 예견하는 부분들이다.

3. 활로 모색의 제주문학

들에는 고독한 섬을 지키는 역새꽃들이 아우성이다. 금세 터질 것 같은 오름들, 상재를 기다리던 원고들 역시 침묵을 깬다. 시는 가난했고 비평은 리얼할 수밖에 없어 서성거렸던 원고들의 외침이다. 신승행의 『문학과 비평이론』의 들머리 서언이다.

한국문학회가 주관하는 여름문학 세미나가 제주도 해군호텔에서 있었고, 주제발표에

나선 신승행은 ‘샤머니즘과 제주문학의 정체성’이란 논제를 가지고, 물은 곧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며 두려움의 존재도 된다는 논리로 제주문학의 현재를 접근했다. 제주의 고독과 두려움 그래서 동제(洞祭)나 여타 물의 제의(祭儀)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샤먼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칼 호수의 유령관이 그것ियो, 150일 동안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노아(Noah)의 홍수가 또한 그런 것들이다. 던데스(Alan Dundes)가 밝히는 북미 인디언 설화에서도 “괴물이 세계의 물을 다 가두었다.” 또는 “영웅이 괴물을 다 죽이고 물을 방출했다.”는 등의 예라든가, 바슐라르(Bachelard Gaston)의 4원소론 즉 물, 불, 흙, 공기의 조화에서 나타나는 물의 상상력이나 이미지세계들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물은 삶과 죽음 결국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것이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카론 콤플렉스(Charon Complex) 이론 역시 이에 어울리는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문학비평가협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한성대학) 주제발표에서도 이러한 물과 관련된 양중해의 마지막 시집 『수평선』에서 ‘수평선’이란 시적공간을 통하여 제주문학이 내보였던 섬의 속성과 자연의 조화를 조명한 바도 있다.

이렇게 제주문학에 있어서 물은 역시 직·간접적으로 민간신앙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제의에 있어서 필수적 금기대상이 되고 있다. 즉 물을 사용하여 목욕재계하고 제의의 공간을 정화시키거나 상징적 원의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특히 정한수의 개념이나 목욕재계하는 금기사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문학은 자연적으로 물과 바다를 문학적 공간으로 설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4. 제주비평의 어제와 오늘

먼저 박철희의 『한국시사 연구』, 『서정과 인식』 등은 가끔은 지역 작품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아닌 광역의 문학적 흐름을 놓고 이론을 편다. 그리고 김영화의 비평 활동은 『현대한국소설의 구조』·『현대작가론』·『분단상황과 문학』·『변방인의 세계』를 통해서 많은 이론을 논리적으로 전개시켰으며, 김병택은 『바벨탑의 언어』·『한국근대시론 연구』·『한국현대시인론』 등의 저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탐색과 비평』에서 제주의 작품들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가치를 탐색하기도 했다. 그리고 안성수는 「죽음과 떠남에 변증법」(조선일보)으로 등단하여 제주문학에도 관심을 보인다. 신승행은 『언어와 문학의 만남』·『시가문학의 정체성』·『문학과 비평이론』 등의 논저를

상재했고, 국제펜클럽 제주지회에서 출판(2007. 11. 25.)한 영역판 『잠들지 않는 한라산』에서는 양중해의 시집 『수평선』을 분석한 「회귀곡선(回歸曲線)의 미학」이란 평론이 또한 선을 보였다. 문성숙은 그의 저서 『개화기소설론 연구』를 상재하면서 개화기의 배경과 서사문학을 탐색하였고, 홍정순은 「김춘수의 시세계」(다층)로 등단하면서 출발을 알린다.

송상일은 그의 저서 『시대와 삶』·『국가와 황홀』 등을 시작으로 오성찬의 문학을 논한 「단추와 허리띠의 한 읽기」가 있고, 양영길은 지역문학의 역사성과 지역문학사의 연구 필요성을 의식하여 『지역문학과 문학사 인식』 등을 펴냈으며, 김동윤은 주로 4·3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이어져가는 제주4·3사건의 진로를 모색하는 『4·3의 진실과 문학』·『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등을 출간했다. 그리고 오경훈의 연작소설 『제주항』을 통한 제주섬의 가난과 외로움을 조망한 등대지기의 삶도 눈에 띈다. 강영기는 『제주문학 담론』을 통해서 제주작가들의 작품성향과 삶을 조명하고 있고, 홍기돈은 『인공낙원의 뒷골목』·『페르세우스의 방패』 문학에 대한 문제점과 정도를 피력하고 있으며, 고명철은 『순간 시마(詩魔)에 들리다』·『논쟁, 비평의 응전』·『제주인의 혼불』에서 창작과 비평의 거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양진오는 「새로운 연대의 노동소설 읽기」로 등단했으며, 『한국소설의 논리』·『임철우의 봄날을 읽는다』·『전망의 발견』 등이 있다. 이 밖에 이훈은 제14회 실천문학 평론부문 신인상으로 데뷔했다.

끝으로 제주수필문학회가 출간한 『제주수필』 제14집에서 문학평론가 한상렬은 「존재규명을 위한 수필창작의 고뇌와 해석의 다양화」란 제하의 글에서, 수필은 삶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최적의 그릇이지만 고뇌가 없는 글은 독자를 감동시킬 수 없으며 진통이 없이는 훌륭한 작품이 탄생될 수 없다는 논리로 제주수필의 현재를 조명하고 있다.

5. 제주비평의 미래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의 문학 역시 내일을 걱정하는 고민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어쨌든 제주의 문학적 소재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섬사람들의 순수한 삶 그 자체였다.

황순원의 「비바리」나 정지용의 「백록담」, 서정주의 「제주도의 한여름」, 박목월의 「제주 시초」 같은 작품에서 제주인의 모습들이 잘 보인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4·3 문학이라는 이념공간이나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도 그렇지만 문

학으로서 순수성 상실이 더욱 두렵다는 것이다. 갈등이나 정서보다 사상을 중시하는 문학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상실된 인간의 본성을 찾으면서 자연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문학적 공간으로 제주를 그려보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제주적인 정서에 대한 매력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사상은 객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정서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정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 작품의 문학적 생명과 예술적인 여운 역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역사라는 공간과 흐름을 바탕에 놓고 작가의 사상이나 이미지 특히 작품이 독자들에게 접근코자하는 어떤 메시지를 응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어야 제주문학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 글 / 신 승 행(문학평론가)

제주문학의 현황

- 2007년 문학 분야 현황 -

1. 프롤로그

이 글은 2007년도 제주문학과 관련한 제반 현황들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제주문학과 관련된 논의를 구체화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007년 제주문단에는 제주문학을 형성하는 많은 작품과 작품집이 생산되었다. 또한, 문학을 향유하고 생활 주변에서 문학의 향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롭게 제주문단에 문학에 대한 출사표를 던진 신인 작가와 함께 제주문단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제주문단 혹은 제주문학은 두 가지 축을 지녔다. 그 하나의 축은 중앙 문학 혹은 중앙 문단처럼 소재 및 상상력 등 중앙 문단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제주라는 특수성에 알맞게 문학을 형상화하는 제주적인 작품이다. 이 두 축 사이에서 제주문단의 2007년은 예년처럼 혹은 예년보다 더 풍성하게 독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2007년 한 해 동안 제주문단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구어 낸 제주문학의 토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 글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토대를 두어 기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부분은 누락되었거나, 어떤 부분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논하는 대상은 개인의 경우 제주출신이거나 제주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문인을, 문학단체 역시 제주에서 결성되어 활동

하는 단체로 한정했다.

2. 2007 제주문학 현황 분석

여기서는 2007년 제주문단에서 이루어진 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문인 현황, 등단 현황, 문학 관련 출판 현황, 문학상 수상, 문학 행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제주문단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가. 갈래별 문인 현황

먼저, 제주문학의 기틀을 이루는 문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제주에는 등단을 하고 문학활동을 하면서 한국문인협회 또는 한국작가회의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문인들도 있다. 하지만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한국문인협회제주도특별자치도지회(이하 제주문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이하 제주작가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기로 한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제주문인협회의 경우 221명의 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작가회의의 경우 77명의 문인이 활동하고 있다. 문인 분포를 갈래별로 보면 제주문인협회의 경우 시인 및 시조시인 91명, 소설가 10명, 수필가 86명, 아동문학가 21명, 평론가 4명, 희곡작가 2명, 번역문학가 7명이다. 한편 제주작가회의는 시인 및 시조시인 44명, 소설가 13명, 수필가 4명, 아동문학가 4명, 평론가 8명, 희곡작가 1명, 번역문학가 3명이다.

〈표 1〉 2007년 말 제주도 문인단체 회원 갈래별 분포

단체명	시·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번역	계
제주문인협회	91	10	2	86	21	4	7	221
제주작가회의	44	13	1	4	4	8	3	77
계	135	23	3	90	25	12	10	298

〈표 2〉 2006년 · 2007년 제주의 문인 수(문인협회 + 작가회의) 대비

연도	시·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번역	계
2007	135	23	3	90	25	12	10	298
2006	128	25	4	83	25	12	8	285

위에 제시한 〈표 2〉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문인의 분포를 파악할 때 단연 시·시조 시인 및 수필가가 전체의 약 75%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의 아름다운 서정적 모습과 4·3사건의 아픈 역사 등을 시로 형상화하려는 데 있다. 또한 수필인 경우 역시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에피소드 또는 삶을 되돌아보려는 노력을 글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혹은 도서관마다 설치된 문학교실을 통해 시 또는 수필 쓰기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시·시조 시인 및 수필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희곡 작가의 수가 3명으로 현저하게 작은 이유는 제주도가 지닌 문화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나. 등단 현황

2007년 문단에 새롭게 발을 디딘 문인은 모두 51명이다. 갈래별로 살펴보면 시·시조로 등단한 문인은 21명이고, 수필로 등단한 문인은 25명이며, 소설로 등단한 문인은 3명이다. 또한 아동문학으로 등단한 문인은 1명이다. 이러한 수효는 지난 2006년 등단한 문인수가 30명임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수가 등단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의 경우 2006년 등단 문인 수가 10명임에 비해 2007년에는 18명으로 2배수 늘어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수필 역시 2006년도 등단 문인 수가 12명이었는데 비해 2007년도에는 25명으로 2배수 늘어났다.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 등단 사실을 밝히지 않은 문인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인 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 또는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학교실을 통해 시와 수필 갈래로 문단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희곡이나 평론에서 등단한 문인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게 한다. 그 원인은 제주지역이 지닌 특수성에 기인한다. 문화적 공간이 절대 부족한 제주에서 연극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연극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연극 공연의 기초가 되는 대본 작성이 더딘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희곡 분야에서 등단한 문인이 없다. 평론 역시 그렇다. 지금까지 제주 평단은 제주대학교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 이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토대로 평론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제주대학교대학원 원생수의 감소는 결국 평론 분야에서 등단하는 문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갈래별로 등단한 문인은 다음과 같다.

- ▶ 시의 경우 정희원 『한국문인』, 박근영 『좋은 문학』, 이이현 『시와 창작』, 양태영 『한울문학』, 강문봉 『한울문학』, 오대익 『현대문예』, 강연익 『시사문단』, 김향희 『문예사조』, 이중옥 『순수문학』, 김은숙 『문예사조』, 변재천 『순수문학』, 백원용 『서울문학』, 박동일 『시사문단』, 김도명 『월간 문예사조』, 김창화 『시와 창작』, 김건우 『스토리 문학』, 최길복 『현대문예』, 이민화 『제주문학』으로 등단하였다.
- ▶ 시조의 경우는 김향진 『시조시학』, 고춘옥 『리토피아』, 서순영 『제주작가』로 등단한다.
- ▶ 수필 갈래를 살펴보면, 오승휴 『수필과 비평』, 강정미 『문학 21』, 부정숙 『대한문학』, 좌여순 『시사문단』, 현명자 『에세이스트』, 박영찬 『대한문학』, 강옥희 『스토리 문학』, 정순덕 『에세이스트』, 현태용 『수필시대』, 현민식 『대한문학』, 오용순 『시사문단』, 김종식 『시사문단』, 강인자 『시사문단』, 조양임 『수필과 비평』, 김성훈 『스토리 문학』, 강미자 『자유문예』, 안정혜 『에세이스트』, 김상우 『월간 모던포엠』, 현철중 『현대문예』, 김영춘 『한국문인』, 김성심 『현대문예』, 이옥자 『현대문예』, 안계선 『현대문예』, 조양혁 『수필과 비평』, 김태우 『제주문학』으로 등단한다.
- ▶ 소설인 경우 안춘식 『시사문단』, 홍창국 『순수문학』, 김영주 『문학저널』로 등단하였으며, 양순진인 경우는 『제주문학』을 통해 아동문학으로 등단한다.

<표 3> 2007년 등단 문인 갈래별 분포 / 2006년과 대비

구 분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한시	계
2007년 등단	18	3	3	0	25	1	0	0	50
2006년 등단	10	4	1	0	12	2	0	1	30

다. 문학 관련 출판 현황

제주문학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결과물이다. 2007년도에도 제주문단에는 문학활동의 결과물인 출판물이 생산되어 독자들과 소통적 만남을 가졌다. 그것은 모두 42권이다. 갈래별로 살펴보면, 시집은 13권, 시조집 2권, 수필집 14권, 번역소설집 1권, 소설집 3권, 희곡집 1권, 아동문학집(점자도서 포함) 6권, 평론집 1권, 기타 1권이다. 이것은 2006년과 비교할 때 약 20권 정도 적게 발간되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희곡집이 발간된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 다음은 발간된 단행본의 갈래별 분류이다.

- ▶ 시집 : 홍성운·백광익 『마라도 쇠북소리』, 문충성 『백년동안 내리는 눈』, 김경훈 『삼 돌이네 집』, 김윤숙 『가시낭꽃 바다』, 송상 『애벌레 날마다 탈출을 꿈꾼다』, 양전형 『도두봉 달꽃』, 김승범 『넌 타잔 난 죄인』, 문정희 『우린 마주보며 웃었다』, 김순남 『누가 저 시리게 푸른 바다를 깨뜨릴까』, 김호선 『서른다섯개의 뼈 격거립』, 이승익 『우성강 연가』, 양인택 『과수원 가는길』, 김길웅 『여백』(13권)
- ▶ 시조집 : 문순자 『파랑주의보』, 강문신 『당신은 서귀포라고 부르십시오』(2권)
- ▶ 수필집 : 안문실 『무표정한 한국인이 정겹다』, 강영삼 『우리 어멍 또똥한 춤, 서귀포 바다』, 최현식 『달빛은 천 강에 비치더이다』, 고권일 『돌보기를 닦으며』, 한성담 『삶의 풍경』, 양수자 『머물렀던 자리』, 강승호 『신문기고로 본 濟州』, 강영민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김가영 『장미의 이름으로』, 김찬집 『상처있는 영혼의 노래』, 윤행순 『하얀스웨터』, 이홍식 『신구간』, 서정림 『가시나무 자루』, 양길주 『여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14권)
- ▶ 번역집 : 정문길 『이반 일리치의 죽음』(1권)
- ▶ 소설집 : 오성찬 『꽃상여』, 김영주 『우리는 아름다울 수 없을까』, 강병철 『푸른 소』(3권)
- ▶ 아동문학 : 김정애 『형제는 함께 달리는 거야』, 김미희 『달님도 인터넷해요?』, 장수명·김풍창 『내 이름은 아임쏘리』, 송재찬 『설문대할망』, 박재형 『검둥이를 찾아서』·『누렁이를 삼켜버린 안개산으로』(점자도서)(6권)

- ▶ 희곡집: 강용준 『파도에 길을 묻다』(1권)
- ▶ 평론집 : 고재환·고명철 『제주인의 혼불』(1권)
- ▶ 기타 : 강문규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한편,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문학단체들도 지속적으로 문예지 및 기관지 그리고 동인지를 간행하였다. 계간문예 다층은 문예지 『다층』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으며, 제주문인협회의 『제주문학』과 제주작가회의의 『제주작가』 역시 1년에 두 번씩 꾸준히 세상에 선보였다. 또한 서귀포문인협회의 경우도 『서귀포문학』을 발간하였다. 제주시조문학회의 『제주시조』, 한라산문학 동인의 『한라산문학』, 제주수필문학회의 『제주수필』, 제주여류수필문학회의 『제주여류수필』, 녹담수필문학회의 『녹담수필』, 국제펜클럽한국본부제주지역위원회의 제주PEN무크 3집 『무한 열려 있는 바다』, 굴림문학회의 『굴림문학』, 새별오름문학회의 『새별문학』, 구좌문학회의 『동녘에 이는 바람』 등도 발간되었다. 한편, 시 동인들의 출간 상황을 살펴보면, 한수풀 문학 동인의 시선집 『필름 속에 갇히다』, 『시인과 귀뚜라미』, 깨어있음의 시가 『섬다워진다는 것』을 출간하였다. 수필의 경우 역시 동인 맥이 『脈』을 발간하였다.

〈표 4〉 2006년·2007년 간행된 개인 작품집(단행본) 대비

연도	시집	시조집	시 감상집	번역집	소설집	수필집	아동 문학	평론집	희곡집	기타	계
2007	13	2	0	1	3	14	6	1	1	1	42
2006	17	2	1	0	8	13	8	8	0		57

〈표 5〉 2007년 간행된 문예지·문예단체기관지·동인지 현황

구 분	문예지·문예단체기관지			동 인 지
	계간	반년간	연간	
책이름	『다층』	『제주문학』 『제주작가』	『서귀포문학』 『녹담수필』 『제주시조』 『제주여류수필』	『새별문학』 『한라산문학』 『동녘에 이는 바람』 『섬다워진다는 것』

구 분	문예지·문예단체기관지			동 인 지
	계간	반년간	연간	
발간주기			『백록수필』 제주PEN무크 3집 『굴림문학』 『제주시조』 『제주수필』 『저슬사리』	『맥』

라. 문학상 수상

2007년 문학상을 수상한 문인은 10명(중복 포함)이다. 이는 2006년 10명인 점에 비해 줄어든 수효이다. 문학상 수상자를 갈래별로 살펴보면 시의 경우 김순이는 제4회 제주도 예술인상과 제8회 덕산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수필에서는 고길지가 「어머니」라는 작품을 통해 제8회 한국문인상을 수상하였다. 김가영은 「장미의 이름으로」를 통해 제7회 제주문학상을 수상하였고, 김길웅은 「제주에서 띄운 편지」로 대한문학대상(산문부)을 수상하였다. 소설의 경우 오성찬은 『꽃상여』로 제4회 박영준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아동문학인 경우는 고광자가 『밤하늘에 걸린 바나나』를 통해 제6회 한국아동창작상을, 장수명은 『호수에 갇힌 달님』을 통해 새벗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기타로 김향심은 제17회 전국시낭송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기별 우수문학 도서에는 박재형의 『이어도로 간 해녀』가 아동청소년문학부문에 선정되었다. 장수명은 『행복한 손수건』으로, 강순복은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분기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다.

〈표 6〉 2006년·2007년 문학상 수상자 갈래별 분포 대비

연도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계
2007	3	1	1	0	3	2	0	10
2006	2	2	2	0	0	2	2	10

마. 문학 행사

2007년에도 예년과 다름 없이 크고 작은 문학 행사가 치러졌다. 이러한 문학 행사는 문학에 목말라 하는 제주도민에게 문학에 대한 향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문학 행사를 마련하여 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제주문단에서 2007년 가장 크게 치러진 문학행사를 나름대로 선택하라면 제주작가회의에서 실시한 「베트남 작가와의 만남」을 들 수 있다.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한국 혹은 제주와 베트남 문학의 또 다른 접목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는 매년 「시로 봄 여는 서귀포」를 통해 도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서귀포의 아름다움과 시의 서정을 통해 새로운 봄의 출발을 선보였다.

한편, 제주시사랑회는 「시가 흐르는 산지천의 금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절별 혹은 월별 제주가 지닌 의미에 알맞은 시를 선택하여 매달 시낭송회를 개최하였다.

제주문인협회는 「여름 창작 교실」, 「제주문학 발전과 뉴-제주문화운동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통해 제주문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제주여류수필문학회는 「수필이 나아갈 방향」 연수를 통해 수필 창작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고, 제주아동문인협회는 아동문학의 밤을 개최하여 문학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이외에도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아동문인협회의 「찾아가는 문학」 시리즈들은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제주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쓴 노고의 행사라 할 수 있다.

〈표 7〉 2007년 월별 주요 문학행사

월	행 사 명	주최·주관
1~12 (매월 첫째주 금요일)	시가 흐르는 산지천의 금요일	제주시사랑회
2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4	제주4·3 5주년 기념 4·3문학제	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수필이 나아갈 방향 연수	제주여류수필문학회
5	오름 문학 기행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찾아가는 문학 강좌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월	행 사 명	주최·주관
6	송수권 시인과 함께 하는 문학 이야기	한라산문학동인회
	책잔치 한마당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현대문예제주작가회의 창립	현대문예제주작가회의
	수필 낭독회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수필 문학의 향연	제주수필문학회
7	제5회 제주시민과 함께하는 시축제의 밤	한라산문학동인회
	파도에 선율을 싣고 시낭송회	한라산문학동인회
	장애인 문학창작 교실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작가와의 만남 - 송상 시인과 함께	한수폴도서관 책사랑 모임
8	제10회 찾아가는 아동문학 교실	제주아동문학협회
	고훈식 작가와의 만남	구좌문학회
	제2회 서귀포 전국문학인대회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여름창작 교실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	도민과 함께하는 시낭송의 밤-시가 있는 가을로의 초대	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작가와의 만남 - 문순자 수필가와 함께	한수폴도서관 책사랑 모임
10	Book Festival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46회 탐라문화제 전도문학백일장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아동문학의 밤	제주아동문학협회
	가을맞이 수필문학 기행	제주여류수필문학회
	베트남 작가들과의 만남 「상흔을 건너는 평화의 거리」	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11	제1회 유배문학의 현장을 찾아서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제8회 한수폴 문학의 밤	한수폴도서관 책사랑 모임
12	퓨전수필연수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초등교원과 학부모를 위한 독서·논술세미나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문학 발전과 뉴-제주문화운동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 에필로그

지금까지 2007년 제주문학의 문단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7년에도 여느 해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제주문단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인은 문인답게 자신의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독자와 작품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점은 분명 제주문학을 발전시킬 또는 제주문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에도 제주문단이 지닌 풍토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특정 갈래에 편중되는 문제이다. 제주문단에서 시와 수필 이외의 다른 갈래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주에는 한라산과 제주바다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연과 이야기는 분명 문학적 소재이다. 또한 제주의 설화는 연극의 소재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 제주적인 문학 소재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시와 수필 이외의 갈래에서도 분명 많은 작품이 창작되고 등단 문인도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주문단의 현실인 특정 갈래에 편중되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작품으로 이야기할 때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독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주의 작가들은 많은 문학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그 속에서 자신의 문학관을 독자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 글 / 강 영 기(문학평론가)

